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정치가 무엇인양고 물었을 때 공자(孔子)는 묻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시대와 상황에 따른 정치의 요체는 무엇이고, 정치는 그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문제는 바로 정치야, 이 바보야

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가 공동선에 반(反)하거나 지나칠 때 그것은 안된다고 단정히 말할 수 있어야 했다.

회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조직해내고 키워서, 통합된 힘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 공동체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흡수되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고(近者去), 떠난 사람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고 싶어 하지 않는다(遠者不來).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저만치 앞서가고, 중국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빠른 속도로 추월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가운데 끼어서 방향과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이 나라 정치는 한 번도 그 시대적 소임을 다한 적이 없다. 걸림돌이 되고 있거나 산통만 깨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 정치는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진지한 고뇌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시장 잠식하는 수입쌀, 농촌이 걱정이다

시판용 수입쌀이 소리가 없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맛도 괜찮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벌써 지난해 의무수입물량이 대부분 팔렸다는 것이다.

농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에 밥쌀용으로 반입된 지난해 의무수입물량 2만1천564t 가운데 90%가 넘는 1만9천643t이 6개월도 채 안돼 판매됐다.

더욱이 2006년도분 수입쌀 의무수입 물량은 올해보다 56.7%나 늘어난 3만4천429t으로 내년 1~5월에 분할도입돼 판매될 예정이다.

리 식탁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가 소득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쌀 농사가 무너지면 농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쌀 농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음식점 쌀 원산지 의무표시제 하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쌀 시장의 개방을 위한 일부에서는 자국 농민보호를 위해 수입쌀을 거둬들여도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은 한번 붕괴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부끄러운 자살률 세계 1위...대책 없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자는 하루 평균 33명꼴로 인구 10만명당 26.1명을 기록, 10년 전인 1995년 11.8명의 2.2배에 달했다.

문제가 보다 심각한 것은 5년 연속 자살자가 늘고 있는데다 20~30대의 자살률이 높다는 데 있다. 연도별 자살률은 1999년 16.1명에서 2000년 14.6명으로 낮아진 뒤 2001년 15.5명, 2002년 19.1명, 2003년 24.0명, 2004년 25.2명 등으로 높아졌다.

OECD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7명으로 200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였다. 헝가리 22.6명, 일본 20.3명 등이 뒤를 이은 반면 영국(6.3명), 이탈리아(5.6명), 스페인(6.7명) 등은 10명을 밑돌았다.

자살은 흔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고, 우울증, 가정불화 등 개인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가정의 해체와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소외, 가치관의 변화 등이 기본 요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현상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특히 IMF 직후를 정점으로 수그러들던 자살률이 증가세로 돌아선 5년 연속 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살률은 한 나라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無等鼓

세계 골프의 초대형 이벤트인 라이더컵이 오는 22일 열린다. 1927년 부유한 영국인 사업가 새뮤얼 라이더(Samuel Ryder)가 손꼽는 트로피를 기증하면서 2년에 한 번씩 미국과 영국의 선수들은 라이더컵을 놓고 그린에서 국가간 자존심을 건 전투를 벌여왔다.

1999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브룩라인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미국팀이 수차례 면모를 보였다. 마지막 저스틴 레너드(미국)와 호세 마리아 올라자발(유럽)의 경기, 17번홀에서 레너드가 45피트 남긴 오르막퍼팅을 성공시키자 미국팀 멤버들과 팬들은 그 린으로 뛰어들어 이겼으며 난리법석

을 떨었다. 올라자발의 퍼팅이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퍼팅이 들어가면 그 홀에서 비기는 상황이었다. 물론 올라자발의 퍼팅은 들어가지 않았다.

“골프 전쟁”이라고 불리는 라이더컵은 스포츠 플레이가 아닌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져 기량싸움외에 치밀한 심리전도 즐길 수 있다. 속칭 ‘맛장 골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지, 주말마다 빈 지갑으로 귀가하는 골퍼들은 눈여겨 볼 대목이 많다.

골프전쟁



그들이 쓰는 전략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전반 초반에는 상대에게 ‘컨시드(기브)’를 후하게 주라는 것이다. 홀과 거리가 멀더라도 과감하게 기브를 주고 박빙의 승부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주말골퍼의 경우 내기의 판이 커지는 7번홀부터는 아주 짧은 거리도 기브를 주지말라는 주문이다.

그러면 짧은 퍼팅을 그날 경험하지 못한 동반자는 불안해 하고, 또 분명 시달리는 듯 한 기브에 황색기면서 불쾌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NGO 칼럼

조기안



순천시 는 지난 2004년 그동안 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몇 번에 걸친 장소선정의 갈등 끝에 주암면 구산리로 처리장 선정을 결정하였다.

24시간 감시체제로 감시활동을 펴고 있어서, 유치단체 활동하는 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서, 꿈을 이룬다고 하고 잃어버린 건강은 누가 보상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는 전임 순천시장이 선인의 고향에 혐오시설을 유치하여 그동안의 부정적인 환경시선에 대한 견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작은 음식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는 매우 옳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는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환경센터로서 장소의 부적합입니다. 사업예정지인 주암면 구산리는 생활쓰레기 발생지인 순천중심지에서 약 30~40Km정도 떨어져 있다. 이는 시 중심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매우 유리할 수 있으나,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를 매일 이송한다는 것은 높아져 가는 에너지 값을 걱정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관리 유지비용 매우 크게 작용

순천시 환경종합처리센터 건설계획 재고를

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추진 과정 충분한 지역주민에게 정보공개와 미흡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지구는 주암호 취수탑과 인접되어 소각로 운영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문제와 부유분진문제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다양한 발암성 유해물질이 광주·전남 300만 상수원 이용시민들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발생 우려가 있다.

순천시도 그렇다면 이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 열린 행정을 추구하여야 하였다. 우리 속담에 맞을 때는 일찍 때를 맞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과 내용 그리고 추진절차에 대하여 완벽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순천시도 소수를 위해서 광주전남 다수는 잃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일부에서는 유역이 주암댐하류로 흐르기에 문제가 적다고 주장하나 준계와 준계의 잦은 안개는 매연과 결합하여 스모그를 형성하여 주암댐에 낙하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한다.

첫째 선정과정에는 유치선정과정에서부터 소수의 의견으로 선정을 하였다. 그 소수 의견을 대표점으로 받아들여 결정하여서, 유치위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과거의 이웃 사촌이 이제는 이웃원수가 되어버린 실정이고, 편안한 시골이 불안한 시골이 되고 있어서, 일부 유치단체 주민들은

우리는 항상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후 약방문이 최고이며, 공사를 시행 시에는 잦은 설계변경이 가장 좋은 기술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맞는 이야기인지 되새김하여 보자.

〈주암호보전협의회 사무총장·초당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늦은 밤 차도위 운동 위험천만

광주시 서구 풍암지구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나 광산구 첨단 쌍암공원 등에는 늦은 밤이나 새벽 조깅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 시민들은 차도를 이용해 달려 자칫 사고의 우려가 높다.

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알아서 피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레저용 놀이기구가 등장하면서 놀이기구를 타고 가는 시민들도 눈에 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과속 차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자칫 사고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희수·광주시 북구 용봉동



토끼의 탄생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동물을 꼽으라면 토끼가 빠지지 않는다.

했다. 어느새 짝짓기를 해 개체가 늘어나기도 한다.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이라도 오는 날에는 동물원 열악한 토끼장에는 풀을 뜯어주는 아이들 행렬이 길게 늘어선다.

어느날 토끼장을 둘러보다 수북하게 쌓인 털 무더기를 봤는데, 그 옆에서 배쪽의 털이 상당히 빠진 토끼 한 마리가 보초를 서고 있는 것 아닌가.

동물원에서 처음부터 토끼를 길렀던 건 아니다.

‘어, 저 녀석 피부병 걸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다가갔더니 하얀 털 무더기가 들쭉거렸다. 그 속에 새끼가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확히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동물원으로 모였다고 하는 게 맞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산 뒤 가정에서 조그마한 새장 같은 곳에 길렀다가 너무 커버려 키울 수 없게 되자 동물원으로 가져온 것이다.

그로부터 15일 뒤, 예쁘고 조그만 토끼 4마리가 털 무더기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들어온 토끼가 5마리가 넘는 다. 물론 토끼의 강한 번식력도 한 몫을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교통사고때 목소리 크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

얼마전 아이들이 운전을 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가고 있는데, 1차로로 가던 승합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던 우리 차 옆으로 끼어 드는 바람에 피하려다 길 옆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 끼어든 승합차량과도 충돌충돌했다.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서에서 2차로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차문을 열고 밖을 보니 승합차량안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5~6명 정도가 무척 놀란 듯 차에서 내렸다. 다행스럽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파손된 차량 부위를 조사한 결과, 승합차가 가해 차량으로 드러났고, 당시 주차된 차량도 불법주차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런데 승합차 운전자가 아들을 보더니 손가락질까지 하며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를 해 사고 처리를 했는데,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라고 우기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우기기만 해서는 원만한 사고 처리가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를 준다.

목소리가 크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낫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rates.